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입장부터 셔틀까지 한눈에

성인 6,000원 입장료... '차 없는 축제장'·무료 셔틀·도심권 셔틀 운영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양시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식이 어우러진 축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입장, 주차, 셔틀버스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입장요금·면제 안내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이며, 현장 매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6세 이하(보호자 동반), 광양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장애인, 국가·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시 입장료가 면제된다. 또한 백운산자연휴양림, 섬진강별빛스카이, 금전계곡야영장, 구봉산숲속야영장, 배알도별빛야영장 이용객에게도 무료입장권이 제공된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동일 금액의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품권은 축제장 부스(노점 제외)와 다압면 참여 점포,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등에서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차 없는 축제장' 운영 및 주차 확대
축제는 방문객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차 없는 축제장'으로 운영된다. 도사주차장~매화주차장, 섬진주차장~매화주차장 구간은 행사·긴급차량, 대형버스, 마을주민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주차장은 총 8개소 3,150면 규모로, 전년보다 250면 확대됐다. 대형차는 도사주차장 70면과 도사제방주차장 70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소형차 전용이다. 둔치주차장은 행사장까지 약 1.5km, 소둔치주차장은 약 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 무료 셔틀버스 및 교통약자 지원
축제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둔치주차장~행사장(1.5km) 구간은 평일 8대, 주말 15대가 투입되며, 소둔치주차장~행사장(3km) 구간은 주말(3월 14·15일, 21·22일)에 5대가 운행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매화길 가벼운 걸음(Fun Run)'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둔치주차장에서 강마을커뮤니티센터까지 걸으며 참여 인증을 하면 손수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 운영
축제 기간 주말(14·15일, 21·22일)에는 광양터미널~광양시관광안내소~광양매화마을 구간을 연결하는 도심권 셔틀버스가 하루 6회 왕복 운행된다.



출발 시각은 광양터미널 기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중마동 관광안내소에서는 30분 후 탑승할 수 있다. 복귀편은 출발편 기준 3시간 30분에서 4시간 뒤 운행되며, 반드시 탑승한 동일 차량으로 돌아와야 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 합계출산율 1.32명 전국 7위 출생아 3년 연속 증가·생활 인구 25만 명 돌파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보성군이 뚜렷한 V자 반등을 그리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성군은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서 합계출산율 1.32명을 기록해 전국 7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0.79명에서 3년 만에 이뤄낸 상승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던 출산 지표가 반등세로 전환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 역시 2022년 81명에서 2025년 12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율 또한 2021년 -2.7%에서 2025년 -0.51%까지 개선돼 인구 구조가 급격한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로 전환됐다.

인구 이동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보성군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380명 많은 순전입을 기록했다. 이는 정주 여건 개

선에 따른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라는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 인구 기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체류 인구는 25만 명을 넘어 주민등록 인구의 약 6배 규모를 형성했다.

외국인 인구는 2022년 473명에서 2025년 1,504명으로 증가해 지역 산업의 생산가능 인구 확충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출산·청년·정주 정책을 연계한 인구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보성군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 확대(2023년) △출생기분수당 신설(2025년)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생애 초기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 △기업 승계 지원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주 기반을 구축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전남 나주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금 1인당 1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일인 3월 3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1회 지급되며 나주시사랑상품권 10만 원으

나주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0만 원 지원

소득 관계없이 입학금 1인당 10만 원... 지역사회 축하 의미 담아

로 제공된다.

외국인의 경우 나주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신청 받으며 신청은 대상 학생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시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4월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선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나주시사랑상품권을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4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5월 29일까지 학생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911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소중한 출발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이 본격적인 봄철 관광 시즌을 앞두고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나선다.

이번 방역은 기존 상승과 함께 위생 해충의 활동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관광객이 밀집하는 주요 명소와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인 공중

담양군, 봄철 맞아 주요 관광지 선제 방역 추진

죽녹원·관방제림 등 관광지 하천변 위생 해충 집중 관리

화장실, 하수구 등을 중점 소독한다.

또한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증가한 갈따구와 모기 등 위생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하천변과 고인 물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방역반은 해충 서식지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모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웅덩이와 정화조 등에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는 등 조기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 휴대용 방역 소독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방역 약품을 무상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 방역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소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없는 청정 담양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광군은 문화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과 자동재충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공연·영화·전시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도서 및 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뿐 아니라 군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 및 숙박

영광군, 202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시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고, 청소년기(13세~18세)와 준고령기(60세~64세) 해당자는 1만 원이 추가 되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

다. 올해 카드 발급 대상은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동재충전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2025년 카드 사용금액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순천시, 소상공인에 스마트기기 최대 100만 원 지원

순천시는 온라인 주문 확대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8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54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중소기업창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특히 키오스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점포 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50㎡ 미만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또는 일반 키오스크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설치한 기기는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제품 견적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스몰지원센터(061-752-8590~1) 또는 순천시 경제진흥과(061-749-57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